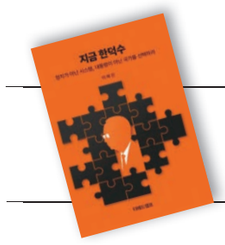
시스템 복원이 필요한 한국, 적임자는 한덕수

중대한 전환점에 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 한덕수

이혜진 지음, 더레드캠프, 1만5900원

대한민국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고 새로운 국가 모델을 요구받는 지금 정치가 아닌 시스템, 대통령이 아닌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책 '지금 한덕수'가 출간됐다.

책은 인물 평전이나 정치적 지지 선언을 넘어선다. 50년 공직 경험을 통해 김대중·노무현·이명박·윤석열 네 정부를 관통하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시스템 복원에 기여해 온 한덕수라는 인물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가 운영 패러다임인 '제7공화국'을 모색한다.

저자는 현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리더십은 화려한 언변이나 강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시스템을 복원하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관리자형 리더십임을 강조한다.

특히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서 실용적 리더십이 빛났던 사례를 분석하며 △정치 불안정 △경제 구조 전환 △트럼프 2기 시대에 대응할 모델로 한덕수를 제시한다.

책은 한덕수의 강점만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키는 대신 △정치적 기반 부재 △대중적 카리스마 부족 △세대 간 소통의 한계 등 약점 또한 솔직히 진단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물론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모습의 국가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소음 없는 리더십(low-noise leadership)의 경쟁력이다.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정치인의 언변이 소란스러운 무기로 변질된 지금, 오히려 '조용한 조정자' 한덕수 스타일이 한국 사회의 갈등 치유와 시스템 정상화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임유이 기자 lye@skyedaily.com

대중·조직원을 이끄는 공공조직이 가능할까

춘천·영도, 문화도시에서 찾은 조직문화 혁신



좋은 조직문화란 무엇인가

장석류 지음, 사과나무미디어, 1만98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과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조직문화의 혁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도시로 꼽힌다.

신간 '좋은 조직문화란 무엇인가'는 춘천문화도시(2022~24 최우수문화도시)와 영도문화도시(2023·24 최우수문화도시)의 실제 사례를 통해 조직문화가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한 영도 문화도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과정과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등 '문화슬세권'의 대표 도시가 된 춘천 문화도시의 시민 중심 조직 운영 방식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조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살펴본다.

또한 두 도시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선택한 전략을 실무자의 인터뷰와 노하우, 실제 활용 자료들과 함께 디테일하게 소개한다.

책에는 공공조직뿐만 아니라 기업과 스타트업 등 다양한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실질적인 가이드가 담겼다.

아울러 △조직문화의 본질과 중요성 △변화를 만드는 핵심 요소 △리더십의 역할 △개인의 직업정체성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조직 브랜딩과 정체성 확립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책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리더와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조직 내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임유이 기자 lye@skyedaily.com

60대 女 킬러… 통념 깬 파격 액션

민규동 감독 '파과' 30일 개봉
전설 vs 젊은 킬러 복수와 화해
이혜영·연우진·김성철 등 열연
닮은 꼴 비극적 운명에 이끌림
상실 딛고 살아가는 이유 담아
구병모 소설 각색해 새로 탄생



민규동 감독의 영화 '파과'는 예순을 훌쩍 넘긴 노년의 여자 킬러 조각과 젊은 남자 킬러 투우의 대결을 그린 액션물이다. 영화 '파과' 속 한 장면. 뉴(NEW)

수십 년 동안 감정 변화 없이 사람 죽이는 것에 도가 튼 대모 킬러와 평생을 바쳐 그를 쫓는 킬러의 숨 막히는 추격전을 그린 액션 드라마 '파과'가 30일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가졌다.

민규동 감독의 새로운 역작 영화 '파과'에서는 지킬 것이 생긴 킬러와 잃을 것이 없는 킬러 사이의 강력한 대결이 펼쳐진다.

파과는 베를린국제영화제와 브뤼셀·베이징 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세계 무대를 섭렵하면서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다.

24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있었던 '파과 언론시사회'에는 민규동 감독을 비롯한 배우 이혜영·김성철·연우진·신시아 등 주요 출연진이 참석했다.

청부살인 의뢰 대상을 거침없이 제거해 왔지만 오랜 시간 몸담아 온 회사에선 한물간 취급을 받는 전설적인 킬러. 그러다 지켜야 할 대상을 만나며 여태껏 느끼지 못한 남다른 감정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젊은 킬러의 목표물이 된다.

영화는 여성과 남성, 40년째 살인을 이어왔지만 한물간 취급을 받는 킬러와 혈기 왕성한 킬러로 상반되는 요소를 극적으로 묘사한다.

'애(愛)'라는 감정에 기반해 서로 의지하던 과거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살벌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증(憎)'이라는 현재가 교차하며 뒤엉키는 운명.

민 감독은 "인물 간 관계성은 한 단어로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복합하다"고 전제한 뒤 "미스터리를 가진 투우는 연민이라는 감정 속에서 고뇌하는 조각과 끊임없이 부딪힌다"고 말했다.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배우 김성철·신시아·이혜영·연우진. 스카이데일리

그는 "둘은 전혀 다른 맥락이지만 교감 끝에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단순한 애증을 넘어선 관계라는 표현이 맞다. 묘하면서도 비극적 운명이 닮은 꼴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확인하는 관계로 합쳐지기를 바랐다"고 부연했다.

파과에는 전형적으로 답습했던 클리셰적 요소를 벗어던진 파격적인 캐릭터가 등장한다. 작품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백발의 노인(할머니) 킬러다.

민 감독은 소위 정형화된 킬러에서 벗어난 캐릭터를 등장시키며 "흔히 60대 여성 킬러가 등장하는 액션물이라면 모두가 만류할 프로젝트가 아닌가. 작품이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오히려 오기가 발동해서 장르적 쾌감과 드라마가 함께 얽힌 독특한 영화를 모색했다"며 "상실을 겪고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과 나이가 들어도 쓸모와 가치를 계속 찾아 나가며 성장하는 삶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파과는 구병모 작가의 동명 소설인 원작을 바탕으로 각색을 거쳐 탄생했다.

민 감독은 "소설에서 영화로 장르가 달라지며 주인공이 부딪히는 장면은 더욱 부각시켰고 과거와 현재가 한 시간대에 있는 것처럼 연출하는 비선형적인 플롯 구조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때 전설적 킬러로 추앙받다 노년에 접어들어 퇴물로 전락한 주인공 킬러 조각이 여전히 명성에 걸맞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액션 장면에 신경 썼다"며 "궁극적으로 두 킬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삶을 살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인간적인 모색이 수렴되도록 했다"고 주안점을 구체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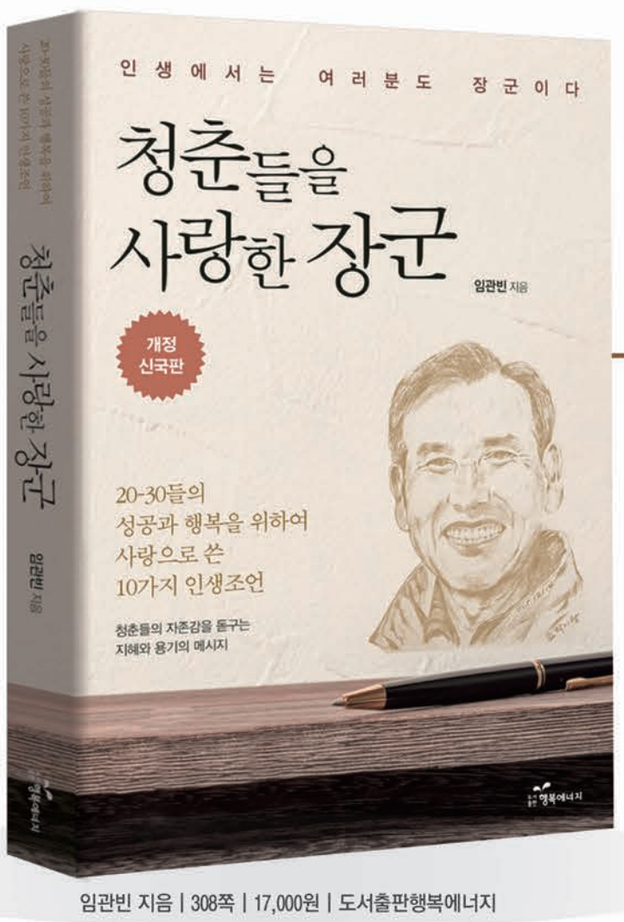
'조각' 역할을 맡은 배우 이혜영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했다.

"작품에서 '늙고 쓸모없어졌으니까 버려야 할 폐기물 아닌가?' 하는 대사가 나온다. 전설로 불릴 정도로 수수께끼 같은 힘을 가진 조각은 성별과 나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고 사회적 통념을 부수고 나온 전무후무한 인물이다"고 말했다.

개성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작품에 색을 더한 출연 배우들의 소감도 이어졌다.

배우 김성철은 "제가 맡은 '투우'라는 캐릭터는 킬러 특성상 액션을 많이 소화해야 했다"며 "기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끈끈한 연대가 형성돼 완성된 작품인 만큼 관객들이 많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밤에는 페이닥터로 일하는 소시민 '강 선생' 역을 연기한 배우 연우진은 "아버지를 연기하면서 지금껏 걸어온 연기 인생과는 또 다른 꿈을 미리 경험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며 "화려한 액션을 비롯 정서적으로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극장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